

# 1930년대 후반기 전민항쟁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으로 항일대전의 승리에 기여한 업적

박사 부교수 강 대 일

## 1. 서 론

전민항쟁으로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는것은 항일혁명의 첫 시기부터 일관하게 견지해 온 우리 혁명의 전략적로선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대전을 선포하시면서 일제와의 대결은 전체 조선 인민의 대결로 된다는것을 명백히 선언하시고 전민항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였으며 1930년대 후반기부터 전민항쟁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민항쟁준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것은 우리가 백두산에 틀고앉아 무장투쟁을 압록강연안과 국내으로 확대하면서 조국광복회의 기치밑에 당건설과 통일전선운동, 대중조직건설을 활발히 벌리던 때부터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중일전쟁발발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치기 위한 실무적조치들을 취해주시고 국내에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을 더 많이 파견하며 조국광복회조직을 더욱 확대하고 랑림산줄기를 리용하여 혁명근거지를 꾸리고 국내도처에 생산유격대와 로동자돌격대를 조직확대하도록 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어 전민항쟁의 령도거점인 비밀근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전민항쟁력량을 보다 강화하며 그에 대한 정연한 지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이 글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1930년대 후반기 전민항쟁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심으로써 항일대전의 승리, 조국해방 위업에 크게 기여하신 업적에 대하여 해설하려고 한다.

## 2. 본 론

### 2. 1. 전민항쟁의 령도거점, 비밀근거지 확대강화

비밀근거지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과 반군사조직들의 활동기지, 작전기지, 훈련기지, 후방기지였으며 전민항쟁을 지도하는 령도거점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민항쟁로선을 높이 받들고 비밀근거지를 튼튼히 꾸리고 확대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민항쟁을 벌리는데서 활동거점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큰 산줄기들에 비밀근거지들을 꾸리도록 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조선혁명의 중심적령도거점인 백두산 밀영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조종의 산, 백두산은 조선의 상징인 동시에 항일혁명의 상징이었다. 백두산을 타고 가야만 민족의 모든 역량을 항쟁의 마당으로 불러낼수 있고 그 항쟁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할수 있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0년대 전반기의 항일혁명투쟁에 대한 총화에 기초하여 밝히신 구상이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편성과 당조직의 확대, 조국광복회의 창립으로 조선혁명이 주체적로선에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갈수 있는 선두기관차와 차량들이 그췌히 갖추어진 조건에서 이제는 조선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열차가 목적지에 곧추 가당도록 지휘할 사령지휘처가 마련되여야 하였다.

이러한 전략적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백두산 지구의 소백수굴에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25(1936)년 9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 지휘성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혁명의 중심적령도거점으로서 백두산비밀근거지를 잘 꾸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백두산근거지창설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무송현성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사령부를 결사옹위하시였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대중정치사업을 폭넓고 다양하게 벌리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백두산밀영건설에로 지휘성원들과 대원들을 고무추동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지휘성원들과 대원들에게 백두산밀영건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밀영건설을 다그치도록 이끌어주시면서 나무들에 우리 인민을 전민항쟁에로 불러일으키는 글발을 새기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밀영주변의 제일 좋은 곳에 서있는 나무들을 골라 새기신 구호는 다음과 같다.

《백두산에 장수별 뗐다 백두산장수별 삼천리를 비친다》

《혈벗고 천대받는 조선녀인들 모두 일어나 항일전에 참가하자 남존녀비반대 녀성해방 만세》

김정숙동지께서는 지휘성원들과 대원들에게 구호 한자를 써도 사령관동지를 백두산의 장수별로 높이 모시고 조국해방의 등대로 떠받들려는 깊은 사상이 담긴 내용을 써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쓰는 이 구호는 우리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의 신심과 힘을 안겨주게 될것이며 일제놈들에게는 전율과 공포를 주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새기신 구호문헌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해방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전민이 반일항전에 총결기할것을 호소한 불멸의 글발이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과 대원들도 백두산밀영주변의 나무들에 다음과 같은 구호들을 새겼다.

《강도 일제 쳐물리고 우리 나라 도로 찾자 무산대중 일어나서 로농정부 세우자》

《일제를 미워하는 모든 역량은 단결하라》

《일본놈 쳐물리고 우리 나라 독립하자》

《반제력 단결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역량은 단결하라》

《혈전만리 항일의 길 고향집오솔길에 잇닿아있으니 하루속히 왜놈치고 부모처자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모두다 조선혁명의 심장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 구호문헌들은 백두산밀영이 조선혁명의 중심적령도거점으로 튼튼히 꾸려진 사실과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정신세계와 투쟁내용을 실증하여주는 귀중한 재보이다.

조선혁명의 령도의 중심거점이 백두산일대에 꾸려진데 대하여 일본의 한 출판물은 다음과 같이 썼다.

《...백두산일대에 밀영을 설치하였으며 유격전을 국내에 확대하고 국내인민들과의 령계를 강화하였는바 이 방침은 많은 곤난을 극복하고 해방될 때까지 지속되었다는것은 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판명되었다.》(《현대조선사자료》 제30권 도표 미스즈서방 1977년 5월 16~17페이지)

참으로 백두산밀영이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전민항쟁의 중심적령도거점에 의거하여 전국적, 전민족적범위에서 전민항쟁력량을 튼튼히 키우고 전민항쟁준비를 힘있게 다그쳐 전민항쟁의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되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으로 국내깊이에 꾸려진 비밀근거지들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시었다.

국내깊이에 비밀근거지들을 꾸리고 확대강화하는것은 전민항쟁의 지역적령도거점을 꾸리는 중요한 사업이며 이것은 전민항쟁준비에서 중요한 조건으로 나선다.

국내깊이에 지역적령도거점이 튼튼히 마련되여야 전민항쟁준비를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전국적범위에서 철저히 실현할수 있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을 전민항쟁력량으로 키워낼수 있다.

이 시기 일제는 로구교사건을 조작하고 중국관내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일제는 세계 5대강국의 하나이며 3대해군국의 하나이라고 자처하였다.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가 파죽지세로 베이징으로, 천진으로, 상해로 쳐들어가자 세계인민들은 일제의 전쟁확대책동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성된 복잡한 정세를 령활하게 리용하면 화를 복으로 전환시킬수 있다는 각도에서 정세를 평가하시면서 일제의 대륙침략전쟁확대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군사작전을 도처에서 맹렬히 벌리는 한편 량림산줄기에 의거하여 밀영망을 꾸리고 국내도처에 생산유격대와 로동자돌격대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전민항쟁의 군사적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30년대 후반기 전민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완성할데 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소 여러차례에 걸쳐 국내깊이에 진출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국내진출을 보좌하시면서 국내깊이에 꾸려진 여러 비밀근거지들을 전민항쟁의 지역적령도거점, 무력적지령점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한 활동을 벌리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몸소 풍산지구비밀근거지와 량림산비밀근거지, 부전령비밀근거지, 신흥지구비밀근거지, 국사봉비밀근거지, 민봉비밀근거지를 찾으시여 비밀근거지들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선 비밀근거지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보장할수 있게 꾸리도록 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26(1937)년 7월 풍산지구비밀근거지를 찾으시여 근거지가 로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지방조직성원들과의 련락장소도 밀영의 비밀이 철저히 담보될수 있는 곳에 정하도록 하시었다. 그후 후치령비밀근거지의 북박골밀영에 오시여 소부대성원들에게 앞으로 국내에 진출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실수 있다는것을 예견하고 밀영을 잘 꾸리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이처럼 김정숙동지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비밀근거지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언제나 안전하게 모실수 있게 꾸려지게 되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비밀근거지를 꾸리는데서 주변지역을 철저히 혁명화하는데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풍산지구비밀근거지를 찾으시여 소부대성원들과 정치공작원들에게 이 지구에 비밀근거지를 꾸리는 목적은 풍산지구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그와 린접되어있는 단천, 리원, 북청, 홍원을 비롯한 중부동해안일대를 장악한 다음 그 일대에서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급속히 확대하면서 당창건준비사업을 추진시켜나가자는데 있다고 알려주시고 비밀근거지를 꾸리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과업은 주변지역을 철저히 혁명화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지방조직과의 연계밑에 이 일대의 주민들부터 철저히 교양하여 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우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26(1937)년 8월 신흥지구비밀근거지를 찾으시였을 때에도 근거지를 꾸리는 사업은 결코 밀영이나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은 인민을 떠나 살수 없으며 근거지는 주변지역의 혁명화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근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숙동지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랑림산비밀근거지, 부전령비밀근거지, 신흥지구비밀근거지, 국사봉비밀근거지, 민봉비밀근거지 등 국내의 비밀근거지들이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주변인민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게 되었다.

주체27(1938)년 9월 랑림산비밀근거지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책임자 및 정치공작원들을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정숙동지께서 1937년 여름 랑림지구에 나와 밀영위치도 잡아주고 군중정치사업과 지하공작방법도 가르쳐주신 활동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숙동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우리 나라 북부조선일대와 중부조선일대에 전민항쟁의 지역적정도거점들이 꾸려진데 대하여 부전령비밀근거지일대에서 발굴된 구호문헌들인 《항일녀장수 김정숙 그 위훈 길이 전하라》, 《금일회합 결의 1. 끝까지 항일 2. 끝까지 변절불 공산당원 광복회원들이 앞장서라》 등에 새겨져 길이 전하고있다.

## 2. 2 전민항쟁대오의 확대강화

민족적해방을 위한 투쟁은 본질상 광범한 대중의 적극적인 참가를 전제로 한다.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참가와 지지성원이 없이는 민족해방투쟁을 조직전개할수 없으며 식민주의자들을 타승할수 없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민항쟁로선을 높이 받들고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묶어세워 전민항쟁대오를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25(1936)년 2월 역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양양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이해 5월 조국광복회를 결성하시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이어 주체26(1937)년 9월에는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시였다.

1930년대 후반기 전민항쟁력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범민족적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가 결성되고 전민항쟁선언인 《조국광복회10대강령》이 발표됨으로써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9월호소문은 전민항쟁호소문으로서 각계각층의 모든 동포들을 조국의 해방을 위한 거족적인 대성전으로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로 되었다.

사실 중일전쟁은 탐욕스러운 일제로 하여금 스스로 광대한 지역에 병력을 넣어놓지 않을수 없게 만듦으로써 병력난, 물자난, 보급난, 원료난으로 허덕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였다. 따라서 중일전쟁은 우리 인민의 독립전쟁에 절망이 아니라 밝은 전망을 열어주고있었다. 다시말하여 목적달성의 절호의 기회를 주고있는것만큼 일제와 결사전을 벌릴수 있는 거족적인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쳐야 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조국광복회조직을 꾸리고 확대하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광복회조직들을 전국적, 전민족적범위에서 급속히 확대해나가기 위하여 우수한 정치공작원들을 북부조선의 여러 지역에 파견하시면서 장백현 하강구 도천리와 국내신파지구가 가지는 중요성을 통찰하시고 이 지구에 비밀통로를 개척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였다.

장백일대는 주민구성으로 보나 지대적특성으로 보나 조국광복회조직을 국내깊이대로 확대해나가는데서 거점적역할을 할수 있는 유리한 지대였다. 이 일대에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하고 튼튼히 꾸려야 그에 의거하여 국내의 넓은 지역에 조국광복회조직을 급속히 확대하고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쳐나갈수 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장백일대에서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하고 튼튼히 꾸리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공작을 진행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26(1937)년 4월부터 도천리에 들어가시여 능숙한 방법으로 마을사람들을 여러가지 형태의 조국광복회산하조직에 묶어세우시였으며 하강구와 중강구, 상강구일대에까지 조국광복회조직망을 급속히 확대해나가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하강구일대를 조국광복회조직망을 국내에도 확대해나갈수 있는 믿음직한 발판으로 전변시키신데 기초하여 삼수지구와 풍산지구, 신흥지구 등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 조국광복회조직망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공작을 적극적으로 벌리시였다.

신갈파(당시)를 중심으로 하는 삼수지구는 국내혁명조직들과의 련계를 제때에 보장할수 있는 위치에 있을뿐아니라 특히 북부조선의 산업지대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놓여있으며 부전령산맥과 랑림산맥을 비롯하여 동해안일대의 국내깊이에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하는데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막아보려고 국경일대에 삼엄한 경계망을 펴고있던 적들은 이곳에 라남 19사단소속 국경경비대, 헌병대까지 주둔시키고 한개 군의 경찰병력에 맞먹는 70여명에 10여개의 포대와 수많은 화점들까지 만들어놓았다. 이곳에는 영림서, 산림보호구, 금융조합, 세관, 전매국출장소, 우편소를 비롯한 기관들도 있었다.

그러므로 혁명조직을 내오고 이곳 주민들을 각성시키면 국내에 혁명조직들을 확대하고 인민혁명군의 군사활동을 지원하는데 매우 유리할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26(1937)년 5월 몸소 신평에 들어가시여 조국광복회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시고 그후 6월에 다시 이곳을 찾으시여 조국광복회지회를 내오시였다.

김정숙동지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신갈파지회산하에는 상장구분회, 하장구분회, 강안동분회가 조직되는데 이어 박주평분회와 아안리분회가 조직되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삼수일대뿐만아니라 풍산지구와 연사, 무산지구, 신흥지구 등 국내 각지에 조국광복회조직들을 내오기 위한 공작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였다.

이처럼 김정숙동지께서는 능숙하고 세련된 지하정치공작으로 조국광복회조직건설에서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국내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통하여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였다.

1930년대 후반기 국내에서 활동하는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적극 발동하여 조국광복회조직을 부단히 확대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26(1937)년 7월초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시급히 국내에 나가 그곳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게 조국광복회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투쟁목표와 전략전술을 알려주며 분산적으로 활동하고있는 혁명가들과 모든 반일애국세력을 하나의 투쟁대오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갈데 대한 임무를 받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26(1937)년 7월 단천에서 신간회 총무부장을 하다가 단천농민폭동에 참가하였던 리주연을 만나시여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에 대하여 전달해주시고 그가 이미전부터 련계를 맺고있는 국내의 혁명가들을 결속하여 전국적범위에서 조직을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벌려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후 리주연은 평양으로 자리를 옮기고 평양고무공장과 곡산공장 등 여러 공장들에서 혁명조직을 확대해나갔으며 남포, 강서지구의 혁명가들과도 련계를 맺고 활동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리원과 북청일대에도 진출하시여 애국지사 리준의 아들인 리용과 초기공산주의운동자 리영을 만나시여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친서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전달하시고 앞으로의 투쟁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북청, 선봉을 비롯한 북부조선일대뿐만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조선일대와 남부조선일대에서 조국광복회산하에 여러가지 형태의 혁명조직들을 내오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려나가게 되었다.

김정숙동지를 만나뵙고 각지로 파견된 국내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 혁명조직성원들은 조국광복회조직을 전국적, 전민족적범위에서 확대하는데서 핵심적역할을 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으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조국광복회조직에 묶어세워 전민항쟁력량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전민항쟁대오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은 각지에서 조국광복회조직을 광범히 내오고 그 주위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결속시켜 전민항쟁력량을 부단히 확대하는 사업을 통하여 추진되게 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전민항쟁력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로동자, 농민들을 조국광복회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우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로동자들과의 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정력적인 활동으로 그들을 조국광복회조직에 튼튼히 결속시키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26(1937)년 7월 풍산지구에서 활동하시면서 허천강발전소공사의 양평언제공사장의 실태를 료해하신데 기초하여 각지에서 모여온 수력발전소공사장 로동자들을 하루속히 교양하여 조직에 묶어세우도록 하시고 조국광복회하부조직을 꾸리는 사업을 양평언제공사장범위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전반적인 수력발전소공사장으로

급속히 확대해나가면서 전국각지에서 모여온 로동자들을 빨리 조직적으로 묶어세울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밖에도 신흥탄광과 무산광산의 로동자들 그리고 연사지구의 류별공들을 비롯하여 국내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로동자들을 조국해방전선에 더욱 굳게 결속시켜나가심으로써 그들이 전민항쟁력량에서 핵심이 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한편 농민들을 조국광복전선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28(1939)년 6월 울기강류역에서 활동하실 때 곧은풀어귀에 있는 농막들에 거처하고있는 농막주인들을 교양하시여 그들로서 반일회명칭을 가진 조국광복회하부조직을 무어주시였으며 그들이 국내에 나가서 대렬을 더욱 늘여나가도록 하시였다. 이들뿐만아니라 울기강류역의 노랑봉농막 농민들도 교양하여 조국광복회산하의 반일회조직에 묶어세우시였으며 주체26(1937)년 8월에는 자강도 랑림군 인산리의 화전민들을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농민들을 조국광복회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가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대로 로조, 농조관계자들도 조국광복회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초기부터 로조, 농조운동에 혁명적영향을 주기 위하여 힘쓰시였으며 1930년대 후반기에는 모든 애국력량을 단합하여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양양으로 이끌어야 할 현실적인 요구에 맞게 로조, 농조관계자들도 조국광복회조직에 묶어세우는데 큰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26(1937)년 7월 풍산지구비밀근거지에서 풍산지구와 후치령 일대에서 활동하는 소부대성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의 모임을 여시고 로조, 농조운동참가자들을 조국광복회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모임에서 소부대성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이 로조, 농조운동을 종파적목적에 리용하려는 종파분자들의 정체를 대중들에게 똑똑히 알려주면서 그 영향하에 있는 로조, 농조운동참가자들을 각성시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기치밑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후 홍원군 남풍리와 경포리를 비롯한 국내 각지에서 로조, 농조운동관계자들을 만나시여 그들이 농조를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풍산과 홍원을 비롯한 국내 여러곳에서 로조, 농조들이 혁명적인 조직으로 재건개조되고 조국광복회산하조직으로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전민항쟁력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또한 천도교인들을 조국광복회조직에 묶어세우시였다.

리념과 실천에서 애국, 애민을 지향해온것으로 하여 천도교에는 농민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교인으로 망라되어있었으며 그들을 조국광복전선에 묶어세우는것은 전민항쟁력량준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이 천도교인들을 조국광복회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26(1937)년 7월초 풍산지구에 나오시여 천도교종리원 원장을 비롯한 교직자들을 만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은 나라를 사랑하고 일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계없이 모두다 하나의 대오에 묶어세워

왜놈들과 싸우게 하자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천도교인들과의 사업에서도 우리를 따라오려는 교인뿐아니라 우리를 외면하는 교인들까지 모두 교양하여 조국광복회조직에 묶어세우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서울에 올라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은 후 그들의 도움으로 각 도 천도교단체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면서 그들에게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내용을 꾸준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리하여 풍산지구의 천도교인들은 그해 정축년기념행사에 이전보다 더 큰 대표단을 서울에 파견할것을 결정하였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의 천도교인들을 묶어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릴수 있었다.

이처럼 김정숙동지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이르는 곳마다에서 노동자, 농민들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조국광복회조직에 결속됨으로써 전민항쟁력량은 더욱 확대강화되어갔다.

### 2. 3. 전민항쟁력량에 대한 통일적지도 실현

혁명조직들과 대중투쟁에 대한 적시적이고도 정확한 지도를 보장하여 각계각층의 반일력량을 조국해방의 기치아래 굳게 결속하는것은 전국적판도에서 전개되는 전민항쟁준비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민항쟁로선을 높이 받들고 전민항쟁력량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시였다.

전민항쟁을 위한 준비가 적극 추진되어오는 과정에 국내에는 수많은 전민항쟁조직들이 나오고 그 주위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군중이 결속되게 되였다.

국내항쟁운동의 실패는 그에 대한 통일적인 령도,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령도를 보장함으로써 반일항전에서 자연발생성과 분산성을 없애고 조국해방을 위한 수령님의 전략적구상에 맞게 전민항쟁운동을 통일적으로 벌려나갈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내항쟁운동의 실패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당조직들이 전민항쟁준비를 주선으로 틀어쥐고 조국광복회조직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에 대한 정연한 지도체계를 세우며 모든 혁명조직들과 대중운동에 대한 지도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선 당조직을 내오고 전민항쟁력량에 대한 당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당조직을 내오고 전민항쟁운동에 대한 당적지도를 보장하여야만 전민항쟁이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진행될수 있으며 사상과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함으로써 그 승리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었다.

1930년대 전반기까지만 하여도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튼튼히 꾸리는데 주력하면서 간도 각 현의 당조직들과의 밀접한 련계속에서 당조직을 확대해나갔으며 앞으로 국내에 당조직을 대대적으로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핵심들을 육성하였다.

국내에서 당조직을 조직확대하는것은 강력한 정치적력량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시하시는 문제였다.

국내에 강력한 정치적력량을 꾸리는 사업은 조국광복회망을 확대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굳게 묶어세우는것과 함께 국내에 강력한



당조직망을 꾸림으로써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항일혁명을 일대 양양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는 핵심력량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이로부터 주체25(1936)년 5월 동강회의에서는 국내에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틀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과업이 상정되고 그 대책으로 국내당공작위원회를 조직하고 혁명투쟁의 골간들로 전위적인 당조직을 확대할데 대한 문제가 협의되었다.

동강회의에서는 당조직건설사업은 유격대에 국한시켜도 안되고 동북일대만을 무대로 삼아도 안되며 국내깊이까지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쌓아나아가야 한다는것, 지금까지는 두만강대안 국경연선의 일부 지역들에만 기층당조직을 내왔으나 이제부터는 국내의 광활한 지대에 당조직들을 꾸려나아가야 하며 국내에서의 당창건준비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서는 국내당공작위원회를 내와야 한다는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강조되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신파일대에서 활동하시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조직건설을 위한 핵심육성과 군중적토대를 축성하신데 기초하여 주체26(1937)년 6월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직속 신파지구당소조를 결성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후 주체28(1939)년 6월 하순 연사지구에 나오시여 연사지구당 위원회를 조직하시요 이어 서두수발전소공사장, 연사읍, 신양 등 지구에 당세포와 당분조를 내오시였다.

연사지구당위원회가 조직됨으로써 연사지구의 전민항쟁력량에 대한 통일적인 당적지도체계가 수립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30년대말부터 여러 지역에 꾸려진 당소조들과 반일대중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실현할 사명을 지닌 지구당위원회들이 태어나 지역적령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김정숙동지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국내의 여러곳에 당조직들이 수많이 결성되고 그 역할이 높아짐으로써 전민항쟁력량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조국광복회하부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지구별위원회들을 내오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조국광복회 지구위원회를 내오는것은 1930년대 후반기 조국광복회하부조직들이 수많이 나오고 그 주위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결속된 조건에서 그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26(1937)년 6월 홍남지구에 파견되는 정치공작원들이 조국광복회 홍남지구위원회를 결성하도록 하시여 이 일대에서 전민항쟁조직들에 대한 지도체계를 수립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산, 연사지구에서 활동하시면서 조국광복회 연사지구위원회를 결성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연사지구에서 활동하는 조국광복회 조직성원들을 만나시여 하부조직결성사업과 그 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다음 연사지구 조국광복회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28(1939)년 6월 28일 연사지구 사지동에서 조국광복회 연사지구위원회를 내오시고 지구위원회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 연사지구위원회는 산하의 모든 조직들이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선전을 강화하여 그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묶어

세우는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하며 조직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확대해나가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어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조국광복회 연사지구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이 일대의 조국광복회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지도체계가 서게 되었으며 연사지구에서 전민항쟁준비를 추진할수 있는 조직적토대가 보다 굳건히 마련되게 되었다.

참으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전민항쟁력량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심으로써 전민항쟁준비를 추진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 3. 결 론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전인민적봉기와 배후연합작전을 하나의 통일적인 체계속에 결합시킬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그것을 조국해방을 위한 전략적인 로선으로 제시하시였다.

혁명무력과 전민족의 총동원으로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구상에는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꾸려온 전민항쟁력량에 대한 믿음이 어려있었다.

주체적인 전민항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민항쟁력량이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1930년대 후반기 전민항쟁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으로 항일대전의 승리와 조국해방위업에 쌓으신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실마리어 전민항쟁준비, 비밀근거지, 구호문헌